15년만의 특별구족계 수계…“꼭 신청하세요”

조계종, 4월 3~5일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미(니)계 수지 20년 지나도
구족계 받지 않은 스님 대상
2월 29일까지 신청자 접수
총 대상자 140명 규모 예상

조계종으로 출가해 사미·사미니계를 받고 20년 이상 지나도록 구족계를 받지 않은 스님들을 위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15년 만에 봉행된다. 여법한 수행풍토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승에 머물러 있는 스님들이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오는 4월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불기 2568(2024)년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고 수행생활을 이어가는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1995년 114명을 대상으로 범어사에서 첫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한 이후 1998년과 2000년, 2009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특별구족계 수계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미·사미니로서 종단 사찰에서 염불과 주력, 포교 등의 수행을 하고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2월 29일까지며 접수처는 각 재적 교구본사다. 직할교구 재적승은 직할교구사무처로 접수하면 된다.

특별구족계를 수계하면 승랍은 승려법에 따라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종사 이하 법계까지 자동으로 품서하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미(니)계 수지자는 중덕·정덕 법계까지만 자동으로 품서 가능하다. 이후 법계는 승가고시를 치러야 한다. 199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미(니)계 수지자의 경우 특별구족계 수지 후 만 5년이 경과하면 승가고시를 치를 수 있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 연혁

연도	장소	인원
1995	범어사	114명
1998	통도사	117명
2000	송광사	265명
2009	통도사	52명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8박 9일 일정인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보다 짧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별구족계 수계 대상이 이미 20년 이상 승려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과 달리 조계종 총무부가 전산으로 수계 대상자를 파악하고,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과거에는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스님에 한해서 특별구족계를 줬지만 지금은 결계신고를 통해 누가 어느 사찰에 주석하고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며 “최대한 개별적으로 연락해 빠짐없이 특별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무부가 파악한 이번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자는 140명 규모다. 교구별로는 직할교구가 총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12교구 해인사가 15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가자는 40명, 이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가자는 100명이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출가 이후 여러 이유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분들이 많다. 조계종에서는 구족계를 받지 않으면 정식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짧게는 20년, 많게는 수십 년을 승려로서 살아오신 분들이 특별구족계를 받고 제대로 자격을 갖춰 수행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단이 선명상 프로그램 플랫폼 돼야”

진우 스님, 명상지도자협 예방서
전국 명상센터 건립 구상도 밝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임원진 예방을 받은 진우 스님이 종단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프로그램 대중화를 위해 종단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2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임원진의 예방을 받았다. 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적경 스님은 이날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족한 단체인 만큼 선명상에 관심이 많으신 총무원장 스님을 돕고 싶다”고 예방 목적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세상에 수많은 명상 기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종단은 간화선을 가장 좋은 수행법으로 판단하고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간화선은 일반 대중에게 너무 어려운 수행법”이라며 “선명상 프로그램은 불교 수행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수용하고 빠르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유럽에서 유행한 남방불교식 명상 등 다른 명상 기법을 지금까지 종단에서 배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며 “어떤 방식이든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소속 20여 개 단체들이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표했다. 스님은 “현재 종단에서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프로그램을 잘 살피고 양해를 구해 선명상 프로그램에 가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적경 스님은 “종단에 잘 협조하겠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종단에 브리핑하고 검토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종단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최소 수십 개에서 최대 108개의 선명상 프로그램들을 누구나, 특히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단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플랫폼에 명상지도자협회도 함께 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전국에 명상센터를 건립해 명상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우 스님은 “당장 선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하더라도 지도교사가 확보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명상지도자협회가 지도교사 확보에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자리에는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과 명상지도자협회 측 상임이사 적경 스님, 이사 무애 스님, 운영위원 일중 스님·금혜 스님 등이 배석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신흥사 주지후보 지혜·홍진·금곡 스님

2월 21일 자격심사, 24일 산중총회 개최



지혜 스님



홍진 스님



금곡 스님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후보로 지혜 스님과 홍진 스님, 금곡 스님이 등록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4일 신흥사 차기 주지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주지 지혜 스님, 전 청평사 주지 홍진 스님, 전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중앙선관위 자격심사는 2월 21일 진행되며, 이날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한 뒤 24일 오후 1시 신흥사 설법전에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열린다. 이번 산중총회는 주지후보 선출과 더불어 우송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보궐선거에는 대현·정현·각보 스님이 입후보한 상태다.

윤호섭 기자

‘열암곡 마애부처님’ 다라니 기도 재개

조계종 미래본부 3월 2일부터 매월 한 차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기원하는 다라니 기도가 겨울철 휴식을 끝내고 다시 시작된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초청해 주관하는 다라니 기도는 3월 2일 오전 9시 30분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에서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과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재개된다. 다라니 기도는 기도에 이어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법문, 발원문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회향한다. 기도법사로는 환풍 스님과 선우 스님, 여진 스님이 함께한다.

매월 한 차례 진행되는 교구본사 주지스님 초청 다라니 기도는 4월 6일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5월 4일 제11교구본사 경주 불국사, 6월 1일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 사부대중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은해사를 시작으로 범어사, 직지사, 고운사가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진현환 국토차관에 전통사찰 관심 당부

진우 스님, 경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전통사찰 경내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2월 13일 진현환 제1차관의 예방을 받고 “조계종단 내에 전통사찰만 800여 개가 있다. 그동안 양성화되지 못한 건축물들이 전통사찰법 개정으로 양성화될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차관님이 새로 오신 덕분인지 불교 숙원을 해결할 토대가 형성됐다”며 전통사찰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진 차관은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신행생활을 한 모친과 직지사 운수암에서 고시 공부한 자신의 인연을 전하며 “현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진 차관 예방은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우봉 스님이 배석했으며,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윤호섭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4년 1월 8일 ~ 2월 28일
■ 개 강 | 2024년 3월 첫째주 3월 4일 (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향 천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